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Mediacenters

보도자료

2017년 2월 8일 배포	보도자료 - 즉시 보도 기자회견문 - 2월 13일 오후 2시 보도
총 9쪽	담당: 사무국장 허경
전화: 070-4352-6394	팩스: 070-7614-2206
메일: krmedia@krmedia.org	담당자 연락처: 010-6822-0038

"미디어교육으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꽃 피운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교육과 관련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가 모인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한다. 이들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지역의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고, 미래 사회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이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드러났듯이, 시민들의 여론 참여는 이제 TV를 넘어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은 평균 3시간가량 TV를 시청하고, 1시간 반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하루에 무려 7시간을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다. 미디어 메시지의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 참여를 통한 적극적 의사소통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미디어교육을 학교 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미디어교육 전문가 김양은 박사는 "선진국에서 미디어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또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생산, 공유하고, 사회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기도 하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언론정보학회 박용규 회장도 "시민들의 미디어 수용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미디어교육은 미디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과거 세 차례 미디어교육지원법이 발의되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견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보편화와 지역 미디어센터의 확대,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미디어교육은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친박 성향의 이사장 낙하산 논란에서부터 최근 감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 비리와 편법 운영으로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 담당 정부 부처도 방통위, 문체부, 미래부 등으로 분산돼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최성은 이사장은 "미디어교육 정책이 다양한 부처 및 지원기관으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교육의 철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감대도 취약하다. 특히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지역미디어센터의 활성화도 미디어교육 정책 정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들은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을 위해 민간 주도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여 단체로는 미디어교육학회, 언론학회, 방송학회 등 학회, PD연합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방송현업인 단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깨미동) 등 학교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해왔던 교사 모임, 전국 30개소의 지역 미디어센터 연합체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미디어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매비우스,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모임 등이 총 망라됐다. 추진위는 출범 이후에도 참여의 문을 개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PD연합회 오기현 회장은 "독과점적 미디어 생산구조에서 시작된 미디어교육은 시민 누구나 미디어 생산의 주체가 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디어교육을 통해 이용자 수준이 높아지면 언론방송환경도 상당히 민주적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디어교육 추진위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여성민우회 강혜란 공동대표는 "모든 시민이 체계화된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가 양산하고 있는 상업주의나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미디어교육지원법의 중요한 미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손승혜 회장도 "추진위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출범식 당일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법제정 방안"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향후 미디어교육 방향, 학교 교육을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 미디어교육 지원시설의 활성화 방안, 미디어 교·강사의 양성과 재교육 및 처우개선 등 정책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 문체부, 미래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교육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지도 논의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관 정부 부처와 산하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학회 문철수 회장은 "미디어는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은 물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소통 구조를 위해 미디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학회 강형철 회장도 "올 하반기에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되어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디지털 혁명과 교육개혁에도 발맞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식과 기념세미나는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상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상 미방위) 등도 참여한다.

● **별첨**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기획안 및 포스터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은 2017년 2월 13일 오후 2시부터 보도요청 드립니다.

- 문의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추진위 간사단체) 사무국장 허경
(070-4352-6394, reunion10@gmail.com)

[별첨]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기획안

① 배경 및 취지

- 디지털 미디어시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격차와 장벽 없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계층과 세대에 대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과거 17대, 19대 국회 당시 미디어교육지원법이 발의되었으나 미디어교육 저변 및 정책적 공감대가 취약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여 제정에 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디어교육 단체 및 지원기관(시설)의 전국적 확대 및 학교 내 미디어교육의 확산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 되고 있음.
- 이에 다양한 현장과 영역에서 활발하게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을 펼쳐온 민간단체 중심으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이하,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를 출범하고자 하며, 출범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② 개 요

- 명 칭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7년 2월 13일(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최
 - 출범식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 기념세미나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송기석(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최명길(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주 관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 참 석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 및 개인, 미디어교육관련 정부지원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
- 내 용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디지털 미디어시대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법제정방안 세미나

3] 세부프로그램(안)

- **축사**
 -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인사말** : 강형철(한국방송학회/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전체사회** : 허경(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간사단체)

- **[1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 1. 출범경과 보고 및 활동계획
 - 최성은(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2.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 3. 기념사진 촬영

- **[2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법제정비방안 세미나**
 - **사회** : 권장원(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발표**
 - 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 김양은(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 2.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 노영란(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사무국장)
 - **종합토론(가나다순)**
 - : 김경희(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 : 류지영(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 : 박한철(덕성여고 교사)
 - : 복성경(미디어교육 강사/부산민언련)
 - : 윤정록(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실장)
 - :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플로어 토론**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일시 2017.2.13.(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출범식 주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기념세미나 주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국회의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프로그램

[1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 ▶ 출범경과 보고 및 활동계획
- ▶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발표

[2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법제정 방안 세미나

- ▶ 발제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김양은 (건국대학교 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 ▶ 발제2.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노영란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사무국장)
- ▶ 종합 토론 및 플로어 토론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참여 단체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 기자회견문은 2017년 2월 13일 오후 2시부터 보도요청 드립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기초 교육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한국인들은 평균 3시간가량 TV를 보고, 1시간 반가량 스마트 폰을 사용한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무려 하루 평균 7시간을 모바일과 TV시청 등에 할애한다.

시민들은 이제 TV를 넘어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고 소통한다. 미디어 이용자는 더 이상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즉석 현장 중계를 통해 뉴스를 생성 전파하는 또 하나의 미디어이다.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 중심의 여론을 형성, 조직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수많은 방송 채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유무선망,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지상파, 편파 시비의 종편, 인터넷 막말과 여론 조작, 중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우리의 미디어환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많은 정보와 불거리가 넘쳐 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막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훈련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디어 공급자 부문의 개혁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유럽과 영미권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미디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에서부터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자기 표현 능력을 배양하고,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민주주의의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정보처리와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디지털 기술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2012년과 2013년에 잇따라 미디어교육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정부 부처의 갈등,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미비 등으로 사회적 관심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최근 자유학기제 실시로 학교 미디어교육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 미디어센터가 잇따라 설립되면서 미디어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사와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편법이 드러났고, 미디어 강사에게 정부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

요하는 등 적지 않은 물의를 빚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총괄하는 제도 역시 부재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미디어교육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통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 주도의 미디어교육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미디어교육관 관련된 각 민간단체는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약칭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를 발족하고자 한다. 학회, 방송 현업인, 교사, 미디어교육 교·강사 및 사회단체 들은 민간 차원의 주도적인 논의를 통해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동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강화로 민주주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이를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듯 청소년들은 영상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것이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세상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지원법은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요구에 화답하여 현재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참여단체]

- 학회 :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 방송현업단체(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 미디어교육지원시설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 교사 단체 :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 시민 단체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지역민·공동체의 미디어접근과 문화향유·창조를 지원하는 지역미디어센터들의 상호 협조를 위해 출범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전국 30개 센터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krmedia.org>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rmedia.org>

※ 취재 문의 :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 070-4352-6394

끝.